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5. 09 + 10  
Vol. 180

# 당신이 방피스메이커입니다





## 화해할 때까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한 그 날, 남한병사와 북한병사의 자리를 남겨둔 채 밥부터 같이 나누자는 행사를 DMZ 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밥상 나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빈자리로 시작했지만 “밥이 답이네!”를 외치며 남, 북한 정상이 밥부터 같이 나누어 먹는 화해와 사랑의 밥상 나눔이 실현될 그날을 기도하며 밥 피스메이커 운동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최목사님, 왜 또 대책 없는 일을 벌리셨나요?’

하지만 27년 전 청량리역 광장에서 한 젊은이의 대책 없는 설령탕 한 그릇이 27년이 지난 오늘 700만 그릇이 넘는 밥퍼가 되었고, 10나라 17분원에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과 후원회원님들의 기도와 나눔과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밥퍼는 꿈퍼로 이어져서 통일한국의 그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이제 남북정상과 우리 아들들인 남한병사와 북한병사가 잠시라도 총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들고 서로 서로 화해의 밥상을 나누는 그날까지 밥 피스메이커의 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처음 라면을 끓이던 초심으로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는 계속 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밥 피스메이커운동 또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매년 8.15 광복절 주간에 DMZ에서는 화해의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남북한 병사들과 남북한 군 최고통수권자가 한자리에 앉아 “밥부터 같이 나누세!”를 외치며 화해할 때까지!

아하!!!^^

2015년 9월에

작은 형제, *최* 월드볼림

# CONTENTS

## 02

### 밥 피스메이커

#### 북으로 보내는 편지

- 함께하고 싶은 북한 친구들에게 (어린이에게)
- 북한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대학생에게)
- 북한의 어머니께 드립니다(어머니에게)
-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남북정상에게)



## c.o.v.e.r.s.t.o.r.y

### 밥 피스메이커!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밥피'의 기적과도 같이 이 나라에서 꽃피어 마침내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기운을 결집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통일 운동의 물꼬를 틔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 12

### 사랑의 연결통로

## 14

### 나의 삶의 변화

## 16

### 제 7회 노블리스 오블리주

## 18

###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 27

###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

## 28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0

### 신규후원회원

## 32

### 후원계좌 및 분원 연락처





광복 70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8.15 광복절에 남과 북이 밥부터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DMZ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밥상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복과 더불어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서로 마주하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픔을 밥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였습니다.

##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 평화통일을 위한 밥상

소엽 신정균 서예가의 대형 글씨 "밥 나눔이 통일의 시작이다. 밥부터 같이 먹세 그려" 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붓 끝에서부터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유석성, 한헌수, 최일도 공동대표의 8.15 공동선언문 낭독과 서울 신학대학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해마루 공연단의 통일과 하나됨의 감동 넘치는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북한의 어린이에게 이혜진양이, 북한의 대학생에게 남한의 여학생 하혜민양과 김시환군이, 북한의 어머니에게 남한의 어머니 윤석화 흥보대사가, 남북 정상에게 드리는 편지를 최일도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편지에서 이혜진양은 "우리 엄마는 응급의사여서 전염병이 퍼진 아프리카와 네팔 지진 현장 등에서 환자를 돌보고 오셨는데 북한은 가보지 못하셨대. 왜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보고 지내는 걸까?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싶어." 라며 통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고, 윤석화씨는 "우리 아들들인 남북한 병사들이 총 대신 손가락을 들고 함께 밥상을 대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식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을 지을 것입니다"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밥 피스메이커 공동대표인 김영훈(고대안암병원장), 유석성(서울신대 총장), 정영택(예장통합 총회장),



채수일(한신대 총장), 최일도(다일공동체 대표), 한헌수(송실대 총장), 황선혜(숙명여대 총장) 7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7,000만의 애원을 담아 비무장지대(DMZ)에 차린 밥상 앞으로 두 분이 함께 나와 달라”며 “매년 민족 화해의 밥상을 차려놓고 두 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 밥으로 만드는 화해의 장

어느 잔치든 잔치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지결 흥겨운 춤과 노래가 있어야 잔치가 잔치답습니다. 만약 춤과 노래가 없더라도 딱 한가지 이것 없이는 절대로 잔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명색이 밥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려는 잔치 마당을 여는 터라 음식 준비에 많은 고민을 하던 중 한촌 설령탕에서 400인분의 설령탕을, 호식이 두마리 치킨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농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 백성들이 함께 고기 삶은 국물을 나누어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령탕과 젊은 군인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한다는 치킨이 한 밥상에 놓이니 말 그대로 잔칫상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빈 자리였지만 남, 북한 정상이 밥부터 같이 나누어 먹고 우리 아들들인 남한병사, 북한병사가 잠시라도 총대신 손가락을 들고 화해와 사랑의 밥상 나눔이 실현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밥상을 나눈 후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신명나는 춤사위로 한 마당 잔치를 마쳤습니다.

내년 광복절엔 서울과 평양을 잇는 도라산역 광장에서 또 한번 화해의 밥상이 차려질 것이고 남, 북한 병사들은 판문점에서 그리고 남북의 최고 통수권자는 어디서든지 화해의 밥상에서 마주앉아 밥부터 나누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밥퍼'의 기적과도 같이 이 나라에서 꽃피어 마침내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기운을 걸 집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통일운동의 물꼬를 틔우는 기폭제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밥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aJL**





## 밥 피스메이커 운동의 시작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남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병사가 밥상 앞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 밥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민간주도 평화통일 운동입니다.

나아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분쟁이 있는 곳과 관계들 속에 밥으로 화해를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사역을 위해 김영호 고려대안병원원장,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 정영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한헌수 숭실대 총장, 황선혜 속명여대 총장 등 7명이 공동 대표를 맡아주셨고 박종삼 전 월드컵회장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고문으로 활동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 70여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과 120여명의 실행위원단을 꾸리고 이들을 주축으로 범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걸어온 길 BAB PEACEMAKER

- 2015. 8.15 ○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밥상나눔 행사(DMZ내 도라산평화공원)
- 2015. 8.10 ○ 생명평화통일운동 심포지움,  
대국민 성명 발표(DMZ내 캠프 그리브스)
- 2015. 8. 3 ○ 밥 피스메이커 출범 기자회견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 2015. 7.25 ○ 밥 피스메이커 구성 (7인의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단, 실행위원단)
- 2015. 7.21 ○ 기획위원단 DMZ 답사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
- 2015. 7. 8 ○ 2차 기획위원단 회의
- 2015. 6.22 ○ 1차 기획위원단 회의

## 밥의 노래(래지나칭칭나네 개사)

- ① 백두한라 어서만나  
밥심으로 민심으로  
얼싸안고 밥을먹세  
어절씨구 저절씨구
- ② 밥이 답이다 밥이 답이야  
이산가족 상봉하고  
화해일치 앞당기세  
어절씨구 저절씨구
- ③ 총을 녹여서 호미 만드세  
남한병사 북한병사  
우리모두 한형제라  
어절씨구 저절씨구
- ④ 이밥먹고 밥이되어  
평화통일 거름되니  
칠천만이 춤을추네  
어절씨구 저절씨구
- [후렴] 어절씨구 저절씨구  
래지나아 칭칭나네  
이밥먹고 밥이되어  
래지나아 칭칭나네  
밥나누세 밥나누세  
래지나아 칭칭나네

## 참여계좌

국민은행 467701-01-275676 예금주 다일복지재단(B.P.M.)

## 함께하는 단체



(가나다순)

# 01 |

## 함께 하고 싶은 북한 친구들에게



안녕 친구들아? 내 이름은 이해진이야. 오늘은 광복절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된 날이고 올해가 70주년 이라고 해.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분단70주년 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인천 한일초등학교 5학년  
이해진

우리 엄마는 세계에서 젤로 바쁜 엄마인 것 같아. 지난해 세월호때에는 팽목항으로가고 에볼라 바이러스환자를 돌보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까지 다녀오시더니 이번에는 또 네팔지진의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돌아오셨어. 엄마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응급의사 시거든.

그런데 슬프게도 아프리카도 가고 네팔도 다녀온 엄마가 북한은 가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견 옳지 않아. 싸우고 힘들어도 화해하는 것이 맞잖아, 그치? 사람들은 우리보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걸까?

우리 통일이 되면 무얼할까? 다들 이야기하는데 난 큰 것을 바라지 않아. 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노래했으면 해. 그리고 난 맛있는 음식도 좋아해. 오늘은 밥부터 같이 나누어 먹자고 하네. 그것도 좋아 난 맛있는 음식을 친한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싶거든. 우리가 한 나라이고 한 형제라는 생각 잃지 말고 손 잡고 나가자.

사랑하는 친구들아!  
난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할게.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며..



우리가 한 나라이고  
한 형제라는 생각 잃지 말고  
손 잡고 나가자.





## 02 |

북녘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숭실대학교 2학년  
김시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숭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시환입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이 된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 된지도 어느덧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오늘은 저를 포함한 남과 북의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한반도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일제의 탄압으로 1938년 자진폐교를 하고 다시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되기 전까지 남과 북의 청년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일제의 탄압에 앞장서서 맞서 싸웠습니다. 좌우를 떠나, 정치적인 신념을 떠나, 남북의 청년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많은 피를 흘렸고 결국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제의 탄압에 함께 맞서 싸웠던 우리는, 지금 이곳 DMZ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남북의 청년들은 얼굴도 모르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서로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밥상은 가족, 형제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젓가락과 숟가락이 교차하며 부족한 것이 무언가 맘을 쓰는 것이 우리네 가족의 모습입니다. 매끼니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남북의 대립도, 좌우의 이념도, 적군과 아군도 사라지며 진정한 한민족이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적 결속과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한 식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 얼굴을 맞대고 같은 된장찌개에 수저를 담그고 맛깔스런 김치에 저분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곧 평화통일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남북의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밥상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하며 북녘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기 저 북녘에 있는 내 친구들아, 너희들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니?"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많은 스펙을 쌓을 것인지,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지와 같은 미래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어. 너희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얼굴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구나. 언제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러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며 청년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가 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함께 토론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술밥을 먹고, 한술에서 나온 송농을 마시며 온기가 넘치는 밥상 담화를 나눌 수 있을까?

통일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통일된 한국의 주역은 남과 북의 대학생인 바로 우리들이라 생각해.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 통일에 관해 배우며, 얼마 남지 않은 통일한국을 상상하고 있단다. 그리고 통일한국에서의 주인공인 우리가 함께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상상을 하곤 해.

나중에 만나게 될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어. 우리 모두 함께 지금부터 통일을 상상하고 준비하자고. 우리는 적이 아닌 함께 통일한국에서 협동하며 살아가야 할 친구라고.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서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같은 자리에서 광복절을 맞이하자고. 나중에 서로 웃으며 마주 앉아 밥 한 끼 할 그날을 난 오늘도 기다릴게. 구수한 송농을 마시며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지내자구."



### 03 |

## 북한의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배우  
윤석화

반갑습니다. 이렇게 편지로나마 북한에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로써 인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식욕이 왕성한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밥을 먹이실 때,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충분히 나누기도 전에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이 서로 외면하며 살게 되었네요. 올해가 광복 70주년!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할머니의 자식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시로 만

나 다정히 그동안 어찌 계셨습니까, 라는 안부도 묻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이들에게 때마다 밥은 잘 챙겨주셨는지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쌀을 보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쌀이 어느 어머니의 부역으로 갈 것인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쌀뒤주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지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부족한 양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먹이려고 당신은 그저 괜찮다 하지 않으셨는지요. 허기진 채 무심히 하늘만 보고 지난 적은 없었는지, 가만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차리듯 당신을 위해,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나누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함께 배불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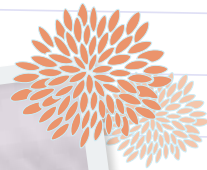
총을 잡은 손에 숟가락을 들고 우리 아들들인 남한의 병사와 북한의 병사가 함께 밥상을 대하여 다른 생각은 없이 그저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서로 평화통일의 손을 굳게 잡고 저 들판의 곡식을 함께 거두어 드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식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을 지을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어머니! 어머니들께서도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또 그 위의 어머니들이 하신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부디, 풍성한 밥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5일

북한의 어머니에게 남한의 어머니 윤석화 보냅니다.



## 04 |

## 박근혜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님께

우리들의 부모님과 형님과 누님들이 그렇게 소중히 지켜내려 하셨던 조국이건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군요.

### 밥 피스메이커 7인 공동대표

조국해방 70년이자 민족분단 70년을 맞이하니 긴 세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이산의 아픔이 뻗속 깊이 저며옵니다. 지적시간의 거리를 복잡한 해외경로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고, 코앞에 둔 고향을 바라보기만 하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타는 가슴으로 잠재워야만 하는 이 고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0년의 세월, 서로 가슴을 열고 만나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응원하며 서로의 가슴을 뭉클거리게 했던 시간도 수차례 있지 않았던가요? 가슴과 가슴이 만날 감격의 시간이 다시 오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염원합니다.

70년 동안 한 동포가 철조망을 허리에 두르고 만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먹먹한 이 가슴을 가진 칠천만 겨레 중에 어느 누가 이런 현실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시여, 이 아프고 갑갑한 현실을 가감없이 바라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두 분이 식탁에 어서 마주 앉아서 평화의 물꼬를 새로 틔우고, 얼혀있는 분단의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을 내딛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밥상 앞에 아무런 제한 없이, 오직 뜨거운 가슴 하나로 만나길 바라는 밥상입니다. 이것만이 민족분단모순의 갑갑한 현실을 통쾌하게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 주는 치유와 화해의 기적을 소망하며 맘 다해 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여기 칠천만의 애원을 담아 차린 DMZ 밥상 앞으로 두 분이 함께 나아오십시오!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화해의 징표인 밥상에 앉을 때에 선열들이 피로 지킨 민족 해방의 역사와 21세기 통일조국의 희망을 비로소 다시 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화해의 밥상을, 민족해방의 밥상을 매년 차려놓고 우리는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밥이 답이다! 밥 부터 같이 나누세!"

눈물로 외치는 이 민심의 소리를 부디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내년도에 차려놓을 밥상에 남북한 병사들과 군 최고 통수권자이신 두 분이 함께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조국광복/분단70년) 8월 15일에

- 밥 피스메이커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영훈 유석성 정영택 채수일 최일도 한헌수 황선혜 일동 드림



그래서 여기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쨌든 브레아 예수~”



## 사랑의 연결 통로

### 임근애

말씀공동체

저는 어린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로 오게 되었으며 감사하게도 2015년 1월부터 다일공동체에서 '유치원 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가 두려웠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곳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빈민촌에 자리 잡은 샘물다일유치원!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아이들

을 보며 저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아이들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 문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ですよ.

아이들은 수업을 할 때마다 하나라도 놓칠 새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눈을 마주치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톤레삽 호수 안에 있는 다일수상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곳 수상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베트남 수상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 배를 타고 유치원에 옵니다. 배가 고장이 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유치원에 못 오는 날도 있습니다. 수상가옥에 살다 보니 물에 있는 아이들보다 뛰어 놀 공간이 없고, 놀이 문화가 부족해서인지 수상유치원에 오면 넓은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 놀며 수업에도 열심히 집중합니다. 유치원에 오고 가는 길이 뜨겁고 힘들지만 이렇게 잘 참여하고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 어린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해 주고 싶었지만 언어의 한계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 고스란히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불러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힘을 내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아이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점심 한 끼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한 손엔 가족들에게 나눠줄 밥을 담은 봉지를 들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은 그릇을 닦는 동안 지나온 저의 삶을 뒤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는 따뜻한 밥퍼와 빵퍼!  
 “어꾼 브레아 예수!”라고 말하며 매일 한명 한명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는 밥퍼 사역!  
 그리고 빵을 정성껏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빵퍼 사역!



“우리가 만든 이 빵을 아이들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스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성스레 빵을 만들었습니다. 40도에 가까운 날씨 속에서 뜨거운 오븐 앞이 덥고 힘들었지만 빵을 먹고 기운을 낼 아이들을 생각하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한 다일공동체!

이곳에서 얻게 된 배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밝은 미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과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꾼 브레아 예수~~♡”

**DaJL**



## 나의 삶의 변화

### 박경희

경북기독교육원 인솔자

경상북도 내 15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 청소년, 인솔교사 62명으로 구성 된 캄보디아 봉사팀은 특화 프로그램인 “설레 go! 나누 go! 변화 go!”라는 주제로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으로 향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지 셋째 날, 우리는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다일공동체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일공동체의 설립목적과 운영방법도 궁금했고 오늘처럼 많은 인원의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을지도 착하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행여나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상상을 끊임 없이 이어갈 때쯤 저 멀리 다일공동체 간판이 보이며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어진 다일공동체 직원분의 열정적인 소개로 이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활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밥퍼

와 빵퍼 그리고 수상 빈민촌 배지원과 아이들의 교육 등을 진행하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으로는 돕고 싶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우리는 조별로 나누어 밥퍼와 빵퍼 그리고 아이들 머리 감겨주기, 화단에 거름과 흙 뿌리기 등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식사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아이들은 급식시간보다 훨씬 일찍부터 몰려와 여기저기서 떠들며 해맑게 놀고 있었다. 난 밥퍼조로 식사를 준비하였다. 식당 안은 음식을 준비하는 열기로 많이 더웠지만 더운 것보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작게나마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기뻐다. 식사 준비와 함께 배식을 준비하는데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로 센터 안이 시끌벅적했다. 그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였다. 식사 한끼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에 나도 덩달아 즐거웠던 것 같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것을 먼저 찾게 되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부끄럽





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일공동체에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 주지 못함에 미안했다.

많은 아이들이 한끼 식사를 위해 맨발로 먼 길을 걸어 오면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찡했고, 8살 정도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린 동생을 안고 걸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한국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멀리 캄보디아 뿐만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밥퍼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잠시나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가슴이 뿌듯했다.

이번 다일공동체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딘 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멋진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여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았다. 거창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을 집중하기 좋아하는 이 세대에 나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며 이번 봉사활동이

나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소중한 다일공동체의 봉사활동을 되새겨 본다. **dajl**



## 제 7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사가 벌써 7회를 맞이 했습니다. 국, 내외 10개국과 17개 부문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일의 사역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만남에는 항상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배어있습니다.

다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구제하지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몸과 같은 공동체이니 소유와 계급으로 서로를 구분하지 말고 사랑 받고 선택 받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STS개발, 도시환경중합건축사, SGI서울보증의 겸손한 후원의 손길

오늘 중국 훈춘에 다일고아원을 지어 주시기로 한 STS 개발의 김현석 집사님도, 2,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후원하신 도시환경 중합건축사의 장낙순 대표님도, 1,000만원을 후원하신 SGI 서울보증에서도 우쭐함이나 우월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겸손함과 주는 행복 있는 아름다움이 넘쳤습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100명의 밥 피스 메이커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눈 다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소박한 이들이 주는 잔잔한 감동이 넘치는 나눔 잔치였습니다.

늘 다일을 후원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회원 한분 한



분이 아름답고 감동인데 행사 때뿐만 아니라, 행사를 마친 후에도 감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1004만원 후원을 약속하신 평생천사회원과 천사회원, 그리고 1대1 결연 신청 하신 분들이 끊임 없이 이어져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재능기부로 더욱 풍성해진 감동의 시간**

제 7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해 매끄러운 진행을 맡아주신 아나운서 김하늘님과 찬양으로 감동을 준 테너 김정규님, 그리고 어쿠스틱밴드 BRANCH 형제자매님께도 아낌없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후원회원 하나 없던 다일공동체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물 흐르듯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좋은 기억만, 좋은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싶은 나쁜 기억과 상처와 고통, 억울함을 준 모든 사

람들에게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 이유는 언제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 7회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함께해주신 후원 회원분들과 다일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인 후원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품 교환권 이벤트를 통해 도움을 주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PECIAL COUPON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우수고객을 위한 감사품 교환권**

이벤트 행사기간 중,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6층 사은행사장  
본 교환권과 당일 7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고객님께 감사품을 드립니다.  
(4품목 중 택 1 다른 점 영수증 합산 불가) • 본 쿠폰은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다일공동체와 MOU 협약을 맺고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행사기간중 당일 7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시는 고객님께 감사품 교환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4품목 중 다일복지재단에 후원하기를 선택하신 고객님께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대한민국 최대의 백화점이며, 국내에서 아울렛을 포함한 총 5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점포(모스크바점, 북경점, 전진점, 전진2호점, 자카르타점, 워해점, 하노이점)까지 확대하여 현재 7만 8천 여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위 대표 백화점입니다.



## 현장 이야기

### 네팔 NEPAL

최홍 네팔다일공동체 원장



#### 네팔에 다시 열린 의료캠프

네팔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넘어서 우기철과 조금 추울 때를 추가해서 6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팔은 본격적인 우기철로 매일 밤 비가 내리고, 낮에도 한 두 차례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매일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서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잇따르는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명현 원장님이 인솔하는 다일지진구호 7진 의료 봉사팀이 다녀갔습니다. 최대 지진피해지역인 신두팔촉을 중심으로 빈민가와 한인 선교사님을 대상으로도 섬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료캠프가 열리고 있는 지척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의료캠프가 열린 그곳에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산을 들고서 의료캠프를 통해 많은 네팔 사람들이 지진의 아픔과 두려움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와 그린엔텍의 사랑

여름에는 어디에나 콜레라를 비롯해서 각종 세균성 질병과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네팔 다일공동체에서는 매일 아침 40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난 후에 반드시 끓는 물



로 사용한 그릇들을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와 정수기 회사인 그린엔텍에서 네팔다일공동체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뿐 아니라, 빈민촌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목이 마를 때면 센터로 달려와서 수도꼭지를 틀고 마음껏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해주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와 그린엔텍에 감사 를 드립니다.

#### 네팔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제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은 아직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진 이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헌법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네팔을 다시 힌두국가로

되돌려 놓으려고 인간힘을 쓰고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선교가 막히게 되고 선교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네 번째 지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아직도 네팔에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를 진앙지로 하는 여진이 있었는데 모두 건물에서 뛰쳐나오고, 아이들은 학교의 조치로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나와서 한 동안 대피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진과 여진으로 1만 여명이 죽었고, 2만 5천명의 부상자와 60만채 이상의 주택이 완파되었고, 30만채 정도의 주택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전의 세 번 큰 지진은 동쪽의 돌라카와 신두팔족, 북쪽의 에베레스트, 남쪽의 고르카와 다딩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서쪽에 에너지가 모여서 큰 지진이 예상된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발표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지진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네 번째 지진으로부터 네팔을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 네팔다일공동체가 빈민촌과 지진피해 지역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다일공동체는 네팔 최대 빈민촌에서 밥퍼, 빵퍼, 유치원, 호프스쿨, 직업기술학교, 일대일 아동결연,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대 지진지역인 신두팔족에 화장실, 물탱크, 학교, 교회, 고아원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네팔다일공동체가 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 필리핀 PHILLIPHINE

한성희 필리핀다일공동체 원장



#### 필리핀 다일유치원의 뉴트리션 데이

필리핀에는 일 년에 한번, '몸에 좋은 야채를 먹자!'는 취지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치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넘는 한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곳 사람들은 야채를 거의 먹지 않아야 채를 먹자고 독려하는 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다일공동체 센터가 있는 마을은 빈민가이기 때문에 비싼 야채들을 사먹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올해 뉴트리션데이에는 대외적인 거리행진을 하지 않고, 센터에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양파로 만든 한국 과자로 과자 따먹기를 하였는데 처음 해본 게임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채 이름 맞추기 게임을 위해 갖가지 야채들을 준비하고 아이와 부모님이 한 조가 되어 부모님의 눈을 가리고 야채의 이름을 맞추는데 팀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를 가지런히 놓고 케첩, 마요네즈, 허니머스터드, 핫소스를 준비하여 다양한 야채와 함께 자신만의 즉석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조별로 준비해온 필리핀 음식들도 풍성히 차려져 그야말로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이 날 아이들의 입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였고 부모님들은 그 사랑스런 모습을 담느라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

생님과 밥퍼 스텝들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즐겁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하던 뉴트리션데이의 틀을 벗어나 야채가 주는 고마움과 몸의 영양을 생각해 보면서 무조건 야채는 먹지 않는 것이 아닌 쉽게 먹을 수 있는 친근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있을 뉴트리션 데이가 벌써 설레임으로 기다려집니다.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 캄보디아 CAMBODIA

김학용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원장



### 다일수상유치원

수상빈민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일수상유치원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캄보디아어를 공부합니다. 그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환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상빈민촌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집짓기

지뢰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쓰룩부억 마을에 예쁜 집 한 채가 생겼습니다. 총신교회에서 집이 꼭 필요한 지뢰피해자 가정에 직접 집을 지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지뢰피해자로 팔을 잃고 다리도 정상 활동이 불편한 상황이며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동결연 후원으로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쌀도 지원 받고 있지만 비가 새는 허름한 집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수고해주신 총신교회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튼튼하고 예쁜 집을 선물 할 수 있었습니다.



### 예향교회 청년 여호수아

경기도에 위치한 예향교회 청년부에서 파송된 비전 트립팀이 열흘 동안 캄다일을 섬겨주셨습니다. 재정과 시간을 떼어 캄보디아를 사랑하고자 온 청년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이 캄다일의 어린이들과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은 밥퍼, 빵퍼, 유치원, 방과후 교실, 도서관 페인팅 등 다양한 사역에서부터 참고정리, 청소 등 세세한 부분들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향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고자 유치원, 도서관 등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같이 중보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캄다일의 곳곳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준 예향교회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DAJL**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 베트남 VIETNAM

이종현 베트남다일공동체 원장



###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 포스코ICT의 한결같은 나눔사업.

베트남다일공동체를 통해 매 년 한결같이 임직원 봉사활동과 밥퍼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ICT 베트남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은 4번째 해외법인으로 정보통신기술(CT)분야의 기업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포스코ICT도 베트남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거대한 빛에 가리워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와 빛이 되어 주는 기업 포스코ICT는 매 월 임직원들이 직접 베트남 밥퍼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업의 이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위해 베트남어로 번역된 동화책 선물을 준비하는가 하면 주변 국가에서 일하며 출장을 나온 직원들도 소식을 듣고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 밥퍼의 배식비와 영양제 지원에 대한 약속을 실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며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사랑에도 앞장서는 포스코ICT가 지속 성장 발전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희망의 손길,****천리 길 마다 않고 전달되는 사랑의 밀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베트남 다일공동체에 구수한 밥 짓는 연기로 연일 행복이 듬뿍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얼굴엔 미소가 번지게 하는 밥퍼는 오늘도 사랑의 밥을 전달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조리공간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가 오는 우기 철에는 늘 빗물이 범람하기 일췌이고 비로 인해 자원 봉사자들의 옷이 흠뻑 젖지만 이마저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더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 비가 범람하던 자리에는 벽돌을 쌓아 턱을 만들었으며, 비가 들이치던 자리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베트남다일공동체...이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리 길 마다 않고 전달된 미주 'white springs inc'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white springs inc'기업체 임직원 분들과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JUST DO IT!! 으랏차차 (주)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

5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마케터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주)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10팀(30명)이 지난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원정 활동을 왔습니다. 1차 선발 200팀 중 물물교환 미션, 캠퍼스 미션, 마케팅 스쿨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 결과 베트남 원정에 선발된 10팀(30명)은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글로벌원정대원들은 베트남 현지인들의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미션 중 '물물교환 및 플리마켓' 미션 수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롯데리아 좋은세상만들기 모금액 일부를 지원해 총 2억(한화 약 1천만원 상당)을 후원해주었습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12-6317-7912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학생들의 신나는 동물원 소풍**

가난의 굴레 속에서 쿤두치 채석장을 떠나본 적 없는 호프클래스 학생들이 난생 처음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사파리(Safari,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함)는 아니지만 '라이언킹'에 나오는 심바(Simba, 스와힐리어로 '사자'를 뜻함)가 있는 옆 마을 작은 동물원으로의 첫 소풍은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소풍날짜가 잡힌 날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던 아이들은 동물원에 도착해서야 사자를 보고 큰 함성으로 신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바, 심바"를 외치던 아이들은 하이에나, 타조, 홍학, 원숭이, 얼룩말, 거북이, 기린, 비단뱀 등을 보며 난생 처음 보는 동물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해서 작은 동물원은 우리 아이들의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북이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기린에게 직접 먹이를 줄 때는 아이들의 함성이 이 작은 동물원을 삼켜버렸습니다. 2,000실링(약 1,000원)의 입장료가 없어서 가지 못하다가 난생 처음 동물원에 온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호프클래스를 통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새가족

지난 3년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섬겼던 변창재, 이현신 원장님 부부의 뒤를 이어 박종원 목사가 2대 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다일공동체 대외협력이사로 수고하시는 이중호 이사님이 협력선교사로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탄자니아다일공동체에 합류하셨습니다. 맨땅에서부터 땀 흘려 수고하신 전임자들의 수고를 발판으로 탄자니아다일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h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86-740-003

##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다일공동체 원장



### 김현석 집사님 방문(STS개발 대표)

여름방학을 맞아 다일어린이집의 온 가족이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은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아쉽다며 한 시간만 더 놀자고 하는 것이 역시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일어린이집은 건물 3층에 임대 중이라 마당이 없는 것이 늘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들이고 다일교회 김현석 집사님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다일어린이집 건축을 도우시겠다며 바쁜 일정 중에 중국 훈춘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늘 중국 다일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건축을 위해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김현석 집사님의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좋은 길이 열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



3

### 마웨의 대학 졸업, 왕조선의 대학 입학

중다일의 마웨가 창사이공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한 마웨와 마웨의 졸업장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이 졸업장이 나오기까지 후원해주신 미국 시카고의 이숙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숙의(스마일님)은 마웨를 가슴으로 낳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마웨의 어머니입니다. 4년을 한결같이 후원과 눈물과 기도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왕조선이 연변대학 의대에 합격, 대학생이 되어 입학하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발걸음을 축복하며 조선이가 의사가 되어 다일의 여러 해외사역지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 김웅남 결혼식

다일어린이집에서 성장한 김웅남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는 새 신랑, 신부를 보니 일체가 은혜요, 감사입니다. 결혼식에 맞춰 한국에서 최일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결혼십계명을 보고 평생 가슴에 새기며 잘 살겠다고 고백하는 김웅남·박련화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훈춘 포스코 정기봉사(법인장 연제성)

매달 셋째주면 훈춘의 포스코 직원분들이 맛있는 간식을 한아름 안고 오셔서 어린이집 계단과 안팎의 구

석구석 묵은 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또한 전 직원들이 매달 월급의 2%를 모아 정기후원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솔하시는 연법인장님도 매번 빠지지 않고 오셔서 응원해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분들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반갑지만 이렇게 중국 현지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DAIJL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1. 마웨의 대학 졸업
2. 김웅남, 박련화 부부
3. 훈춘 포스코 정기봉사

##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이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 다일작은천국 결핵 정기검진 및 교육 실시

2015년 7월 21일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단체생활을 하시는데 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결핵 정기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핵 정기검진은 동대문보건소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밥퍼나눔운동 광장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일작은천국은 결핵의 올바른 지식과 예방법으로 입소자 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동대문보건소에 감사드립니다.

### 해피빈-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 “알로하~우크렐레를 연주하는 천사들”

다일작은천국에서 해피빈-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문화예술지원에 “알로하~우크렐레를 연주하는 천사들” 제목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입소자 중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대다수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스트레스와 무력감,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여생의 시간을 아껴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의미있는 행복의 가치를 창출해 가는 시간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음악연주활동을 통해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노숙생활로 인해 지치고 삶이 무력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의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설에 전에도 시도하고자 악기 연주활동 (우크렐레) 모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소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맺글과 콩을 나눠주세요!

함께 사랑을 나눠주세요. **DaIL**



해피빈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19380>

다일 천사병원 작은천국

☎ 02-2213-8004

1. 결핵 정기검진 및 교육
2. 신한가족 '우크렐레를 연주하는 천사들'



1



2

## 밥퍼

이지현 밥퍼나눔운동본부 본부장

### 밥퍼는 희망, 희망, 그리고 희망입니다.

7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밥퍼에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어린 봉사자들이 넘쳐납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밥퍼 봉사에는 학기 중에는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을 맞이하여 봉사를 참여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밥퍼 식당을 메우고, 봉사하는 내내 수다를 떠는 여학생들의 모습과 솔과 식판을 닦느라 땀으로 온 몸이 비오듯 흘러 내리는 남학생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로 학생 봉사자들에게 힘을 얻어 줍니다. 아직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듯이 봉사에 참여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단 하루의 경험에서도 무언가를 느끼고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봉사가 단지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밥퍼 봉사의 마지막 순서는 소감문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한 여중생이 쓴 소감문입니다.

밥퍼에서는 힘들어하고 모든 것들을 치밀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호 급식소'라는 개념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간 밥퍼의 진짜 의미와 진짜 목적을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밥퍼 자원봉사를 통해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밥퍼' 라는 이곳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것"

이번 봉사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재미있지도 않았습다. 하지만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밥퍼에서 밥을 먹을 때는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니 나조차도 마음이 밝아지고 이 봉사가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밥퍼, 그 따뜻하고 밝은 희망, 희망,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끼의 밥으로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해하는 어른신

들의 모습에 자신의 마음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나눔과 섬김의 밥퍼 봉사에서 희망을 봅니다. 밥퍼 봉사는 피부로 접촉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와 손잡고 밥퍼 식당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밥퍼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년 동안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밥퍼 봉사의 마지막 단계인 3부를 봉사자들이 열심히해 주셨다는 겁니다. 배식을 마치고 홀을 청소하고 식판과 솔을 설거지 하고, 식당의 배수구까지 깨끗이 닦고 수저를 삶고 행주를 빼는 일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기적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년간 쌀이 떨어져서 배식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누구인지 모를 기부자가 밥퍼의 마당에 쌀을 놓고 가고, 계단에 콩을 놓고 가고, 십시일반 모아지는 정성으로 어른신들의 진지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27년간 밥퍼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 봉사자분들과 후원회원님들의 사랑의 후원금이 모여져서 여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밥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세상은 계속 됩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사랑의 밥퍼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daj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지은이 : 유진 피터슨

시 제공 : 최별 (Byeol Ellie Choi)

## >>>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어슴푸레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호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보시는 제 모습,  
당신의 구원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 . m . a . h a p p y . v o l u n t e e r

국내



### 전주성광교회 |

방학을 맞이하여 전주성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울로 여름 수련회를 오게되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밥퍼봉사를 넣어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 밝은 목소리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대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여름수련회의 밥퍼봉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명일중학교 늘빛브라스밴드 |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몸까지 축 늘어질 수 있는 밥퍼에 브라스밴드의 웅장한 연주로 어느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명일중학교 늘빛 브라스밴드 친구들의 멋진 연주였는데요. 어르신들도 쉽게 보지 못하는 브라스 밴드 연주를 눈앞에서 보니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도 추셨습니다. 늘빛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음악회! 참 감사합니다!



### 동부영재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학을 맞이하여 동부영재원 학생들이 봉사를 왔습니다.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왔는데 각 학년이 누가누가 잘하나 내기를 하는 듯 아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처음 봉사하는 친구들을 두 번째 봉사하는 친구들이 알려주며 서로 협동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요. 동부영재원 친구들!^^



### 아마데우스 코리아 |

7~8월은 단체팀 대부분이 학생이지만 오랜만에 기업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데우스 코리아 임직원분들은 처음 인사할 때부터 반짝 반짝이는 눈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봉사에 임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밥퍼를 오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다며 앞으로 가족들과도 함께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참 감사합니다.

## 해외



### THANH CONG | 베트남 다일공동체

한 달에 한번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통해 밥퍼와 의료봉사를 실천해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의료사업 및 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THANH CONG 회사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의료료, 배가고픈 분들에게는 나눔의 양식을 고루고루 제공해주는 THANH CONG 회사가 베트남에서 더욱더 멋진 기업체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나눔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THANH CONG 회사가 최고입니다~ 최고야!!



### 통큰소 | 베트남 다일공동체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밥퍼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통큰소'라는 한식당에서 맛 좋고 영양만점인 닭백숙, 족발 등 다양하고 푸짐한 먹거리를 후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위로 다소 지쳐있던 몸에 원기를 불어넣어주듯 몸보신을 책임져주고 계신 통큰소 윤석기 사장님과 함께 섬겨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맛도 영양도 만점인 '통큰소'가 최고입니다!!



### 더불어꿈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오는 '더불어꿈'팀이 이번에는 시엠립이 아닌 프놈펜 밥퍼로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4일간 매일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머리를 감겨주고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찾아와주는 '더불어꿈'팀 감사합니다.



재 시엠립 모의유엔 참가 청소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시엠립에 거주하며 제1회 시엠립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유엔에 참가할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에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를 통해 따뜻한 인성과 배려심을 배워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p><b>신규후원회원</b> 15.06.15~08.13</p>	<p>(주)내일이엔시, (주)리서치랩, Walker, John, 가수박시환팬클럽, 강대선, 강승기, 강윤정, 강은주, 강지섭, 강호정, 경민유치원, 고경자, 고미영, 고성옥, 고영숙, 고인화(김미영), 고정옥, 고희숙복은교재수씨, 구영주, 국립재활원신우회, 권민성, 권병규, 권정옥, 권하은, 김경미, 김경범, 김경희, 김귀순, 김금애, 김금진(중국), 김덕중, 김도담, 김동규, 김명연, 김미숙, 김민옥, 김방지, 김병중, 김빛나, 김상식, 김설희, 김성대, 김성범, 김성희, 김성희, 김승미, 김승기, 김신애, 김아영, 김영남, 김영주, 김영철, 김예림, 김옥자, 김우태, 김위숙, 김윤영, 김은경, 김은숙, 김은주, 김은혜, 김자연, 김재성, 김정연, 김정학, 김정훈, 김종근, 김준형, 김지윤(박은희), 김지현, 김지혜, 김철순, 김태윤, 김태현, 김태현, 김학조처, 김한숙, 김혁, 김현지, 김호춘, 김흥기, 김화분예찬엄마, 김희수, 김희수, 남궁민옥, 남규빈, 남다빈, 남명자, 남상운, 노지순, 도정훈, 동기훈안옥화, 드림교회, 톨윗다, 롯데백화점청라리키즈존, 리일홍광, 무극교회청소년부, 무명할머니, 문경미, 문경미서일레, 문숙영(교회보수), 문신봉+김덕자, 문종국, 민보미, 민수식, 박경윤, 박경필, 박기정, 박기제, 박상호, 박상훈, 박선환, 박성진, 박성희, 박세영, 박우진, 박우환, 박원철(정성룡), 박정민, 박정아, 박종호, 박준형, 박지영, 박지현, 박채연, 박철순, 박해옥, 박혜인, 박희숙, 방순애, 배도준, 배석주+배민수, 배옥희, 배은지, 배하나, 복진석, 봉용미, 사림의공동체, 사단법인국제푸른나무, 사랑을전해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삼성원교회학교, 서연수, 서연주, 서일레문경미디어, 서효영, 성아진, 성탄절선교회, 소망교회6남선교회, 손대호, 손호영, 송길원, 송재선, 송재성남가족, 송진영, 송현정, 수련회어른 아이들, 신동호, 신미정, 신상수, 신상한, 신영철+생동원, 신지영, 신지혜, 신혜정, 신혜란, 심유라, 심은숙, 심혜영(최준환), 아이은음악학원, 안서진, 안종혁, 안지호, 양인숙, 엄기봉, 엄명숙, 엄우정, 엄희경, 예정총회(정영택총회장님), 오종섭, 오태희, 오홍열, 원혜선, 유다연, 유상희, 유승연, 유영숙, 유한회사 아마테우스코리아, 유형룡+김금숙, 육소담, 윤석+김중, 윤영태, 윤태순, 이길훈, 이덕자, 이동학, 이동훈, 이문규, 이미라, 이미림, 이민구, 이민지, 이병찬, 이삼주+임현택, 이상윤, 이상재, 이성수, 이성희, 이슬기, 이승연, 이승한, 이연오, 이영희, 이예지, 이유연, 이윤희, 이은규, 이은자, 이은주, 이의석, 이인서, 이인영, 이재원, 이정규, 이정호, 이정훈, 이종민, 이종빈, 이주영, 이지은, 이채희, 이태규, 이혜지, 이후남, 이희범+이제구+김박기, 임마누엘교회, 임수일, 임인순, 임종미, 임진우, 장경민, 장민호, 장빈, 장안정, 장유진, 장재원, 장정옥+김주경, 장총기, 장현정, 전민경, 전주환, 전형운, 정경숙, 정경태, 정권수, 정규희(김은화), 정기성, 정다운, 정만재, 정상규, 정성훈, 정영혜, 정웅, 정유빈(김은화), 정지현, 정홍진, 조강래, 조경원, 조민영, 조성찬, 조영숙, 조윤숙, 조정삼, 조혜인, 차승희, 차정희, 천은지, 청지기, 최금자, 최명진, 최백주+김숙자, 최별, 최선화, 최송이, 최순희, 최영근, 최원석, 최원훈, 최종현, 최지혜, 최진용, 최필남, 추지원, 표미경, 필다일한성희, 하승자, 하정일, 한동대학교, 한순재, 한지훈, 한종열, 함경희, 허동진, 허진영, 허향숙(김수아), 허희화, 현용석, 홍근호, 홍재은, 홍희재, 황금동고등부, 황덕연, 황상진, 황선혜, 황성애, 황영관, 황예성, 황용섭</p>
<p><b>밥퍼나눔 운동본부</b> 15.06.15~08.13</p>	<p><b>후원물품</b> / 드림재단(빵 7,200개), 삼오종합식품(된장 3통), 이서진(쌀 80kg), 태진인터내셔널(쌀 600kg),(사조해표 쌀장, 된장, 간장 등), 칠봉정미소(양배추 2box), 해피라이스(쌀 100kg),두산정보통신(쌀 700kg), 청소년희망드림(쌀 40kg), 전북영농조합(파프리카 5kg), 기부미울산지사(쌀 20kg), 서울우유(우유 7,020개), 서울메트로(쌀 500kg), 한국식품연구원(쌀 97kg), 감민수-이초아(고사리 2kg)</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b>다일천사병원&amp; 작은천국</b> 15.06.15~08.13</p>	<p><b>후원금</b> / 김나연, 부영상희, 씨제이프레시웨이, 임기한가족 <b>후원물품</b> / 게스트하우스(흰족 20박스), 김성권시인(시집 50권), 서노협(의류 및 마스크), 양유화(이동 식변기 및 목욕의자)</p>
<p><b>캄보디아다일공동체</b> 15.06.15~08.13</p>	<p><b>후원금</b> / 2015 단국대학교 해외봉사단, 4-H, AZA (순천대학교), JENNIFER RYU, 경북아동복지협회, 구미대학교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김의중 (안성시 4-H), 능곡 솔로몬 논술학원, 더불어꿈, 더사랑의교회 이서진, 더사랑의교회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도봉교회, 동송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뽀얏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보건시니어, 봉피양/장동화, 뷰티플마인드, 신라대학교, 신일중고등학교, 아이체험예향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옥인교회, 유승근, 윤병수(서남장로회), 윤태광 (안성시 4-H), 이동주/성경원/이현지/이형진, 장유진, 장유혁, 전남교육청 청소년 해외봉사 및 문화체험단, 제주 KIS, 제주영락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충신교회, 하늘꿈교회, 한국대 언약의교회, 함영희</p> <p><b>후원물품</b> / 경북아동복지협회 (쌀, 간식 외), 능곡 솔로몬 논술학원 (의류, 신발), 동송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의류, 간식 외), 뷰티플마인드 (의약품), 성경원 (장화), 시청지역지부 (학용품), 아이체험 (학용품, 간식 외),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의류, 학용품 외), 예향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의류, 학용품 외), 오정민 (의류, 학용품 외), 이정식 (의류, 학용품 외), 전남교육청 청소년 해외봉사 및 문화체험단 (의류, 학용품 외), 제주 KIS (의류, 학용품 외), 제주영락교회 청년부 비전트립팀 (의류, 학용품), 진유나 (의류, 학용품 외), 코리아트래블 여행팀 (의약품, 의류 외), 하나투어 여행팀 (의약품, 의류 외), 황경경 (간식)</p>
<p><b>중국다일공동체</b> 15.06.15~08.13</p>	<p><b>후원금</b> / 김성재(Obey&amp;Praise), 민경식(북경),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 박교진(샌프란시스코) <b>후원물품</b> / 권윤경(월 4회 간식지원),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우유, 초코파이), 훈춘 한국인 어머니모임(점심지원)</p>
<p><b>탄자니아다일공동체</b> 15.06.15~08.15</p>	<p><b>후원금</b> / 김용기&amp;노미라, 신경숙, 탄자니아한인교회 <b>후원물품</b> / 주탄자니아 미대사관 봉사팀(노트3박스, 연필192자루, 연필깎기7개, 축구공1개)</p>
<p><b>베트남다일공동체</b> 15.06.16~08.15</p>	<p><b>후원금</b>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MAX VINA, NAHAL, ORION, POSCO VIETNAM, POSCO VIETNAM HOLDINGS, POSCO-SEA, THANH CONG, VEGAS,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경인교육대, 기업은행, 김경중 원장(U.E.C), 닥터캐(고갑순 대표), 대장금, 동화기업, 무명1, 무명2, 미주다일공동체후원금,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산상선, 조덕현님, 참조은광성교회, 최예승(대청밥회비6월~8월), 캐나다다일공동체 후원금, 호치민중앙교회</p> <p><b>후원물품</b> / KREVES (순가락아동300개, 성인1200개), LOTTERIA(햄버거voucher 1천만원), POSCO ICT(쌀 20kg), Sweet Factory(빵1,900개), THANH CONG(라면120box, 쌀600kg, 바나나120개), VE-GAS (라면5box, 우유3box), 경인교육대(의약품), 사이공드림교회(라면9box, 우유6box), 통큰소(족발 12set, 닭30마리)</p>
<p><b>네팔다일공동체</b> 15.04.16~08.10</p>	<p><b>후원금</b> / 주안복지재단, 김성조, 이모세, 영광교회, 조경민, 함현진, Muna, 미국, 캐나다청소년 트래킹팀, 이정식, 지진구호 네팔 비전팀, 모자이크교회, 서울다일교회, Ashik Shresths, 대한예수교총회 사회부, 이리신광교회, 박혜란, 다일해외의료봉사팀, 무명</p> <p><b>후원물품</b> / 한국방역협회(방역기 및 방역약품 일체), 함현진님(종합감기약, 아기배냇저고리), 박혜란(돈보기, 어린이티셔츠, 캔디), 무명(간식), 무명(담요), 무명(영양제 및 의약품)</p>
<p><b>필리핀다일공동체</b> 15.06.15~08.13</p>	<p><b>후원물품</b> / 이슬기(2,000페소), 서울대기독교합창단(어린이츄리닝 35벌), 정릉교회(4,000페소), 박성민목사님부부(만들기 재료), 안경영(슬리퍼센들 30개)</p>

#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캐나다 후원계좌(TD Canada Trust)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Bank of Americ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미주다일공동체 구좌로 송금하시거나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usa.org)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후원하실수 있습니다.)

##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 다일복지재단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 밥퍼니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 설곡산다일공동체

12471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 다일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 네팔 다일공동체

####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White House No 10

Dar Villa Plot No. 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786-740-003

###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12-6317-7912 / 070-8220-6160

###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416-824-4831

# 나눔이 희망을 꽃피웁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진심어린 마음은 어린이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좀 더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나눔회원 서비스



#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일대일아동결연                       기타  
월 1만원 \_\_\_\_\_구좌                      월 3만원 \_\_\_\_\_명                      월 \_\_\_\_\_원

##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원

## 재능기부

-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  
 나  
 트  
 시  
 트  
 시  
 트  
 시  
 트  
 시  
 트

DAIL COMMUNITY

보내시는 분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 다일영성생활수련

힐링 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부, CEO, 교수, 목사, 정치인,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류승범(영화배우)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 일정

####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7기 10월 12일 ~ 16일(4박 5일)

168기 11월 16일 ~ 20일(4박 5일)

169기 12월 14일 ~ 18일(4박 5일)

### 등록안내

-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전 화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www.dail.org](http://www.dail.org)

###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다일공동체)

#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http://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카카오톡 친구되기

- 1.ID로 등록: dailwf
- 2.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